

JET PROGRAMME

경험담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세 번째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김가영 아오모리현 룻카소무라 1-3

이미선 미야자키현 미사토 4-8

이호선 나라현 9-11

서은주 에히메현 12-13

【青森県六ヶ所村 国際教育研修センター】

1. 왜 JET프로그램?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하던 저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는 그런 의미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이 조금씩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일본 도쿄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 학생으로 지내면서, 일본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저는 JET프로그램을 알고 나서 내가 꿈꾸던 직장이 여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국제교류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JET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 롯카쇼무라(六ヶ所村)

일본 혼슈(本州)의 최북단 '아오모리현(青森県)'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롯카쇼무라(六ヶ所村)는 여름엔 선선한 날씨에 높은 하늘과 광활한 자연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백조들이 호수에서 노닐고, 애증의 눈(雪)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인구는 약 1만명 정도인 롯카쇼무라는 일본에서도 매우 특수한 지역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시설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촌(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처에서 온 관련 시설 연구원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도 도시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 시골 생활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수확 철에는 주변 분들이 직접 수확한 무, 마, 연근과 같은 마을 특산물을 받기도 하고, 지역 이벤트 봉사 활동을 하고 받은 언어를 직접 손질해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주민 분들과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생활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시설 및 롯카쇼무라 풍경]

3. 롯카쇼무라(六ヶ所村)의 업무

로카쇼무라 한국인 국제교류원의 업무는 한국어 강좌, 한국 문화 강좌, 출장 강좌, 국제교류 이벤트 기획, 강원도 양양군과의 교류 업무, 통역 및 번역, 블로그 및 공보 작성, 지역의 외국인 주민 지원 등입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던 강좌는 '요리 강좌'였습니다. 참가하신 주민 대부분은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슈퍼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가영씨 이번 달에는 한국 요리교실이 없네. 다음 달엔 꼭 해줘요."라며 요청을 하시곤 했습니다.



[요리 강좌]



['이문화 교류 페어' 한국 부스]

또,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조각보 공예 강좌를 기획하였고, 매일 매일 퇴근 후 한 땀 한 땀 연습을 하며 조각보 공예의 섬세함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치 강좌의 연습을 위해 일주일 내내 김치를 담가 보기도 했습니다. 별로 한국에 관심이 없었던 중학생 친구가 한국 문화 강좌에 참가한 후, 양양군과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말로 다 못할 만큼 뿌듯했습니다.

룻카쇼무라 국제 교육 연수 센터의 가장 큰 행사인 '이문화 교류 페어'가 다가오면, 약 두 달 전부터 6명 남짓한 센터 직원 모두가 준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각 나라 부스에 대해 기획합니다. 이벤트 구상부터 회장 장식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주민들과 '네부타마츠리(ねぶた祭)' 참여]



[통역 업무]

4. JET프로그램과 현재 나의 관계

JET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참가자들도 영어권 출신이 많고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업무 중에 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영어를 잘했다면 국제교류원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4년차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하던 중 더 늦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하였고, 현재는 캐나다 소재 칼리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JET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선택이 있는 것처럼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도 다음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JET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

JET프로그램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첫 직장이었고, 꿈을 실현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했으며,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JET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엔 매우 떨렸습니다. 꼭 참가하고 싶었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다양한 경험들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송별회]



1. 제2의 고향을 만들어 준 'JET프로그램'

제가 일했던 곳은 인구 6,000명이 채 안 되는 미야자키현(宮崎県)의 작은 시골 마을 미사토정(美郷町)입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 앞에는 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곳을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놀이교실을 하며 친해진 꼬마 아이들이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길에서 만날 때 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집 앞의 논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로 흘러가는 계절을 느끼며, 주위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도와주던 따뜻한 마음씨의 이웃사촌이 있는 미사토정. 지금도 너무 그립습니다. 마지막 해 가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이제 이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겠지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을 만큼 저에게 미사토정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동네 작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어느새 동네 분들이 모여 반상회가 되고, 편의점 사장님과 수다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퇴근길. 이 모든 것들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제가 JET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0년, 도쿄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의 지인이 JET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국제교류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동료의 말 한마디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여러 가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과의 교류를 업무로 할 수 있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제가 일하던 도쿄의 지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후 본격적으로 JET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회사를 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지 못한 탓인지 두 번의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宮崎県 美郷町】

그 때마다 JET프로그램이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재차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봄,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던 국제교류원으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치 받은 곳은 미야자키현 미사토정의 난고지소로, 국제교류원으로 파견되는 지역 중에 손에 꼽을 정도의 벽지(僻地)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하게 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한 시작이었습니다.

2.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의 국제교류원

미사토정은 인구 5,000명이 안 되는 작은 지자체이지만, 한국과의 국제교류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는 국제적인 지역입니다. 백제왕의 후손이 정착해 살던 곳이라는 전설이 남아 1,000년 넘게 그들을 기리는 마쓰리(축제)가 거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 부여읍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직원 간의 교류는 물론 매년 한국으로 중학생들을 파견하여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 내에서 여권 발급률이 가장 높은 것이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모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대규모의 행사보다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작은 이벤트 위주의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미사토정에 와서 처음 맡은 행사는 '백제마을 온천축제'라는 지역 축제였습니다. 저는 행사의 기획 과정에서의 조력과 현장에서 통역 및 이벤트 부스 관리 등 국제교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맡게 되어, 행사 당일까지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산 위에서 바라본 미사토정(美郷町) 난고(南郷)]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하지만 저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행사에 숙련된 마을 주민들과 동료 직원들이 제 손이 미처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셔서 정말 편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레시피 없이도 김치 부침개를 부치고, 한복 저고리 고름을 능숙하게 매시는 분들이 수도룩한 지역. 정말 살면 살수록 제 고향같이 느껴졌습니다. 30여 년간의 풀뿌리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무수한 추억,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그리움을 품은 여러 주민들은 저를 마치 자신의 친구처럼, 혹은 친척처럼 친근하고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외국인이 아닌 같은 주민으로 대해 주시며 연말연시에는 마을 대청소, 가을에는 신사 제전 등에도 주민 자격으로 참가하고, 가끔은 반상회도 나가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면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상으로도 활발하게 한일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나 놀이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제가 살고 있는 난고 지역의 중학생 전원을 이끌고 충청남도 부여의 자매학교를 찾아가 국제교류를 하고, 가을에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방문단을 인솔하여 부여의 백제문화제에 참가, 겨울에는 백제 왕족 부자의 혼을 기리는 '시와스 마쓰리(師走祭り)'에 맞추어 한국에 방문하는 수많은 분들을 맞이하는데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4년을 지내다 보니 정말 꿈같이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매주 1회 진행하는 한국어 강좌의 수강생들이 어느새 한국어로 조금씩 말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만난 수줍은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커 초등학교생이 되고, 장난기 많은 초등학생들은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체감했을 때는 벌써 JET참가자로서 마지막 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투에는 어느새 지역 사투리가 진하게 배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동네 주민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계 중학생 방한연수]



[미카도신사(神門神社) 축제 무용대(舞踊隊) 참가]



[2014년 백제문화제 출장 수행]

미사토정을 떠나기 며칠 전, 지역의 학교에서 저를 교직원 이임식에 교사 자격으로 초청해 주셔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날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준비해 간 인사말도 다 하지 못하고 엉엉 우는 저를 천진하게 바라보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 사회에 진하게 스며들어 지냈던 4년간, 저와 지역 주민들은 많은 추억을 공유했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4년간 국제교류원으로 활동하며 이룬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JET프로그램, 그 다음

단 한번의 망설임 없이 4년차까지 계약을 연장했을 만큼 미사토정을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5년차 재계약을 앞두고 향후 진로와 나이 등을 생각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이직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국 후 한일 양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며 JET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어학 교육업체에서 일본어 강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원 업무를 통해 만난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들과 교류하거나, 한국어 강좌를 운영했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실용적인 일본어 강의를 제작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4년간의 국제교류원 생활은 글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깨달은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더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국제교류원으로 보낸 4년간의 추억과 진실한 인연을 앞으로도 소중히 간직하고, JETAA활동 등을 통해 한일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마지막 강좌 '복주머니 종이접기 체험'을 마치고]

2018.3. かわどほいくしよ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4. JET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저는 JET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순간, '아, 이건 내 일이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시험에 두 번이나 낙방했으니, 국제교류원이 되기까지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의 시간이 있었기에 미사토정에서 보낸 4년간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값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불안해하며 준비했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국제교류원으로 일한 4년간, 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인구가 6,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생활하면서 저를 통해 한국을 보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한국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마을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 일본을 다시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JET프로그램을 준비했던 3년, 참가했던 4년, 총 7년의 시간은 앞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서 미야자키 사투리와 함께 진하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국제교류원이라는 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JET프로그램은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디딤대로 생각하시고, 임기가 끝난 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직업을 갖겠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겠다'보다는 JET프로그램을 앞으로의 진로에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신규JET 오리엔테이션 패널리스트로 참가]

국제교류원
나라현

이호선
..... K-JET 23(2015-2018)



【奈良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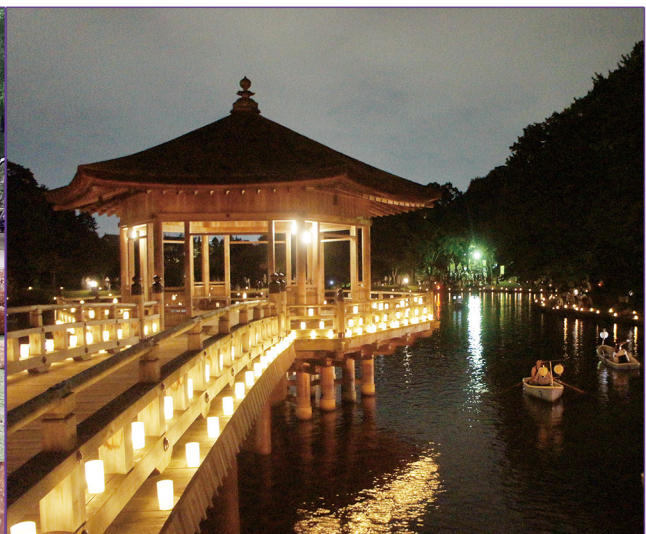
1. 막연하게, 하고 싶다.

막연하게 통역과 번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일이 마법처럼 보였기 때문일까? 어떤 언어라도 좋으니 통·번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외국어 학과로 대학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학업 도중, 휴학을 하고 다녀온 일본 어학연수를 계기로 일본어에 흥미를 느껴 졸업할 즈음에는 전공 언어보다 일본어가 더 일취월장해 있었고, 이럴 바에야 일본어 통·번역에 관련된 일을 찾아보자고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비전공자인 저는 경험도 정보도 부족하여 일본어 관련 통·번역 일을 찾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된 JET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통·번역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국제교류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해보자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던 통·번역 경험도 쌓을 수 있는데다, 일본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거야말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서 하는 고생이라 생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번에 합격하게 되었고, 제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지역인 나라현청(奈良県庁)에 배치되었습니다. 다시 지원하라고 해도 망설임 없이 제1지망은 나라현청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은 제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2.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나라현

때로는 지역 정보지의 센스 있는 편집자! 때로는 레크리에이션 강사! 때로는 진중한 번역가! 때로는 국제회의의 서포터! 그 정체는?! 네 바로 나라현의 국제교류원입니다. 제가 근무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교류원들은 그 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통·번역부터 이벤트 기획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은 독특하고 힘들지만 재미있었던 업무가 바로 지역 정보지 '나노라(奈の良)'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신의 사자'로 여겨지는 나라 공원의 사슴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나라현의 등불축제 '나라 도카에(なら燈花会)']

국제교류원의 업무 중에는 한국문화 강의 등을 통해 일본 내에 한국을 알리는 업무도 있지만, 위와 같이 외국인의 관점에서 일본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업무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국 문화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 문화도 심도 있게 공부하여 지역의 매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하기에 하루하루 체험과 학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맞춤형 관광 계획을 짤 수 있을 정도로 나라현의 정보통이 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겠죠.

奈良 の 良い所

Na no Ra

日本文化の始まり・歴史にあふれる葛城市

P.2 : 相模免祥の地、葛城市

P.3 : 時代を超える道「竹内街道」、中野郷

P.4-5 : 露蔭寺 縁供養会式（聖慮来迎縁供養会式）

P.6-7 : ペットリフ 二上山霊地巡り

第6号





드라마의 시즌이 끝나면 주인공은 또 다른 모험을 찾아 떠납니다. 나라현에서 3년간의 국제교류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현재 도쿄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국제교류원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회사원 생활일지 모르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할 때는 잠시 국제교류원으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국제교류원이라는 직함은 달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풀뿌리 교류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3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 다음 시즌에도 간간이 출연해 술 한잔 기울이며 저의 도쿄 인생극장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4.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 교류란 무엇일까요?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길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ET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국제 교류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JET프로그램에서의 '교류'는 그야말로 종합선물 세트였습니다. 지사님 곁에서 통역을 하거나, 국제회의의 서포트를 하거나, 한복을 차려 입고 유치원에 방문하여 원생들과 함께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류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국제교류원은 늘 여러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대에 서는 배우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많고,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자질이야말로 국제교류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원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국제교류원에게 필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JET프로그램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ET프로그램을 자신의 인생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국제교류원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JET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고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도쿄타워. 도쿄 생활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1. 집념의 도전

2013년 3월 어느 날 저는 전철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에히메현 국제교류과의 과장님께서 부임자 확인과 합격 축하를 위해 주신 전화였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에히메(愛媛)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굴과 도고온천(道後温泉)으로 유명한 곳 이요'라고 간단히 대답하였는데 에히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JET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강의 중에 교수님으로부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던 저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JET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교류원으로 합격하여 에히메현으로 가기까지 저는 5번의 필기시험과 5번의 면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도전의 끝에 국제교류원으로 JET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2. 5년간의 즐거운 도전

에히메에서 5년을 지낸 지금은 '우와지마(宇和島)의 진주', '이마바리(今治)의 섬', '구마코겐(久万高原)의 카르스트 지형' 등 전보다 에히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간의 시간은 지금도 눈앞에 펼쳐질 정도로 생생하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한국에 대해 소개했던 일, 베테랑 요리사이신 어머니들 앞에서 오이소박이를 담갔던 일, 인천-마쓰야마(松山)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항공사에 방문하여 통역했던 일. 이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은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이마바리시와 히로시마현(広島県)의 오노미치시(尾道市)를 잇는 시마나미海道(しまなみ海道)를 새로운 체험 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시마나미해도를 무대로 국제 사이클링 대회 '사이클링 시마나미(サイクリングしまなみ)'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평소에는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세토내해(瀬戸内海)를 바라보며 신나게 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에히메현에 처음 부임했을 당시, 저에게 자전거 경험이라고는 초등학교 시절에 탔던 보조 바퀴가 달린 네발자전거를 타본 경험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측 내빈의 길 안내자 겸 통역으로 40km의 자전거 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분들이 참가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리는 자전거 이벤트에 참가하여 하루에 100km를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교류원
에히메현

서은주
..... K-JET 21(2013-2018)



【愛媛県】

3. 또 다른 도전의 시작

2018년 4월, 에히메에서의 5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현재 도쿄에서 새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설명보다, 에히메현의 관광지와 먹거리를 설명하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에히메현에서 경험했던 국제 교류와는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인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직장 동료와 선배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민간 교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다음 도전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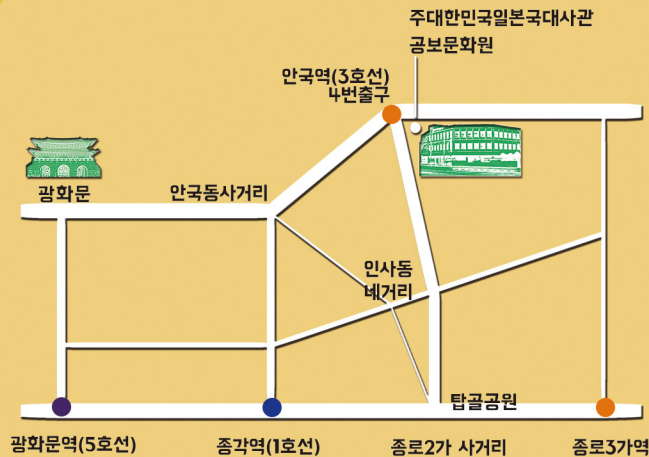
1차 스크리닝 시험은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일본에 대한 지식은 물론, 현재 한일 양국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건은 2차 면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여러 번 면접에서 낙방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여행사 근무 경험으로 일본의 관광지리를 익히고, 일본의 지자체에서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요리 강좌 이해를 위해 떡 가게에서 일하며 떡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5년의 시간을 JET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며 응모 요강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합격자들의 수기를 분석하며, 왜 JET프로그램에 응시하여 국제교류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JET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JET프로그램 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저와 같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험과 능력, 비전에 대해서 표현이 부족했던 것이 여러번 고배를 마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의 시간이 헛된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의 준비 기간과 5년의 JET 참가 기간, 그렇게 10년의 시간 동안 저는 생생한 일본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JET프로그램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용시간 | 월~금요일 (10:00~12:00 / 13:30~17:30), 대사관 휴관일 제외

주소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문의 | 02-765-3011 ~3 (내선 140) jet@so.mofa.go.jp

Embassy of Japan in Korea

<https://www.kr.emb-japan.go.jp/cult/JET.html>